



시론

“캡티니티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1982년 1월 13일에 미국의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막 이륙한 에러 플로리다 여객기가...

미국의 한 연구팀이 병원 간호사실 22곳에 전화...

예배당을 새로 구입하고는 이전의 구조를 개편하여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일차적으로 당회에서 찬성을 했으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72%의 미디어가 지적하고 있다...

롬니 후보 역시 미디어로부터 “부정적”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한 포인트 뒤진 71%에 머물고 있다...

크리스천 여성, 영적 내공 역시 강건하다!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크리스천 여성 설문조사 중 3번째 결과 발표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온전하다. 그만큼 크리스천 여성들 본인의 신앙평가나 영적 건강 조건들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있어 우선 순위는 바로 자녀교육과 영성 훈련과 계발이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공동체에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62%). 이들 중 38%는 친밀하게, 43%는 밀접하게 기도나 찬양 그리고 묵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다.

영적 생활 만족도에 따른 좀 더 실제적인 응답을 묻는 설문에는, 73%는 “기쁨”과 “영적 해방”이라고 응답하고, 67%는 어느 정도의 성취감마저도 맞고 있다고 대답

욕심, 과식, 나태, 분노, 질투와 허영과 전통적인 죄는 크리스천 여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크리스천 여성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50%가, “비효율적이다”고 42%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죄에 있어서는 8% 정도가 “성욕”으로 고민한다고 답하며,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정형화된 ‘질투’는 13%가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는 36% 정도가 고민하고 있다. 또한 25% 정도가 “이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관계의 영원한 단절이 여성들이 손꼽은 가장 아픈 경험이다. 즉 29%는...

영적 생활의 부정적 측면은 3% 불과..기쁨·영적해방 73% 가장 큰 갈등은 비체계적, 비효율적...관계단절·상실엔 큰 상처

한다. 반면에 영적 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오직 3%만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혼돈을 겪거나 의심하며 두려움을 갖는다고 대답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 성욕, 심” 때문에, 19%는 자신들이 너무 논쟁적이며 무식하다고 16% 정도가 갈등을 호소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72%의 미디어가 지적하고 있다(The Master Character Narratives in Campaign 2012: Press Coverage of the Character of the Candidates is Highly Negative, and Neither Obama nor Romney Has an Edge).

롬니 후보 역시 미디어로부터 “부정적”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한 포인트 뒤진 71%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 공화 양 후보의 성격이나 인품에 기대하는 미국인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나 소신을 번복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도

생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장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상처라고 말한다. 또한 20%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상처를 준다고 말하며, 9%는 이혼이나 나쁜 결혼 생활이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실망 중의 하나라고 답한다.

여기에 건강 문제, 재정이나 도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동 리서치의 킨너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과반수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내공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여정에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 문제, 재정이나 도

적인 요소는 바로 그가 자신을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나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벌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신을 ‘보통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미국인과 다른 상류 엘리트 가문에 속했음에도 자신을 “블루칼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Global talent cultivation and practical training. Founded in 1986.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Midwest 특징: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3) 손영규 선교사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Global Holistic healing institute) 원장

불교 강성 경주지역서 교회발전에 노력

“경주지역은 불교가 강성한 지역이라 기독교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포함 및 율령도 지역까지 연합해 유대관계를 건고히 하며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손영규 글로벌 전인치유 연구원장

한미 교회교류 통해 정보교환 상호업그레이드
차세대 리더십 양성으로 세계 선교 비전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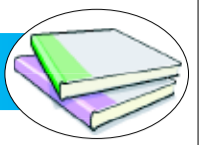
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교회를 타깃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등이 단종과도 경주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마침 지역교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런 세미나 등을 생각할 때 큰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큰 교회들과 연결이 되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요.”

에 이바지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7-80% 정도가 작은 교회이며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교나 목회에 대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새책 소개



“여리고로 가는 길”

저자 정총해 박사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 지난해 말 정총해 박사의 저서로 출간됐다.

한 이민 가정의 아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읽게 한다며 당선작으로 선정됐을 당시의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블 기 등

(13면에서 계속)
아라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물질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 유혹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대장 마귀가 “혹시 이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얼굴이 험악해지더라.

된다”라고 했고, “시기의 화살은 타인을 향하지만, 그 상처는 자신이 입는다”고 한 현자들이 있습니다.

로 주려 하니라”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750.00 \$150.00